

진화론의 성과를 악용하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

리 명 수

진화론의 성과를 악용하여 진화론적분석방법을 설교함으로써 사람의 모든 활동을 생물학주의적으로 외곽하고있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비판하는것은 현대부르조아철학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옳게 파악하며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주체철학의 견해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부르조아사상가들과 수정주의, 개량주의자들은 모든 사물현상을 생물학적인 진화론적관점과 속류유물론적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사람들속에 자연생장성과 물질지상주의를 고취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철학을 해설선전하는데서 마땅히 이러한 생물학주의적이며 속류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비판의 예봉을 돌려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페이지)

사회생물학은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생물학주의적으로 외곽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현상을 변호하고있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이다.

사회생물학은 두 단계를 거쳐 발생, 변천되어왔다.

초기의 사회생물학은 19세기말 도이칠란드의 사회학자 텐니스(1855—1936)에 의하여 부르조아사회학의 한 분파로서 제창되었다.

그는 사람도 동물과 같은 유기체로서 생물학의 법칙에 따르므로 사람의 집단인 사회도 생물학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을뿐아니라 사회생물학을 조작하고 그속에 자연인류학, 인구학, 사회위생학을 포함시켰다. 텐니스의 사회생물학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조락되어버렸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은 20세기 후반기부터 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에 기생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다시 되살아나 자본주의사회를 합리화하는데 복무하고있다.

후기사회생물학의 대표자는 미국의 에드워드 월슨(1929—?)이다.

월슨은 자기의 대표적저서 《사회생물학》(1985)에서 사회생물학은 《모든 사회행동의 생물학적기초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면서 진화론적분석방법을 사회현상의 연구에 외곽적용하였다.

다윈의 진화론을 외곽적용하여 사람과 사회를 진화론적으로 연구하는것은 부르조아 생물학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특히 사회생물학은 생물진화에 관한 생물학의 성과를 사람과 사회현상의 연구에 교활하게 악용하여 진화론적분석방법을 설교하고있으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신사회다윈주의》라고도 불리우고있다.

사회생물학에 일관되고있는 진화론적분석방법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사람의 활동인 사회현상을 생물물질일반이 가지는 단순한 자연적속성, 생물학적속성과 생명물질활동의 발전완성으로 보는 부당한 분석방법이다. 즉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질적차이가 아니라 발전수준에서의 차이로, 사람의 모든 특성이 동물에게 맹아적형태로 존재하던것의 발전완성으로 보는 허황한 꾀변이다.

물론 진화론 그자체는 과학이며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것은 과학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사회현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자면 사람과 생명물질과의 공통성

을 찾으려 할것이 아니라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과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해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물학은 진화론적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사람과 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외곡해석하고있다.

진화론의 성과를 악용하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사회를 동물무리의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외곡하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를 응당한것으로, 《과학적인것》으로 합리화한다는데 있다.

사회생물학은 인간사회의 모든 특성들이 동물무리에 맹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인간사회를 동물무리가 발전완성된것으로 설명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진화론적립장에서 인간사회와 동물무리의 공통성을 찾으려고 하는것이 사회생물학이다.

사회생물학이 주장하는 사회는 인간사회만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개미나 꿀벌로부터 물고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동물들의 무리를 다 포함하고있는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사회란 협조적으로 조직되고있는 동물개체의 모임》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즉 사회를 규정하는 필수적인 기준이 《협조적인 호상교제》라고 하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서로 《협조》하고있는 동물무리를 모두 사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사회생물학은 인간사회가 동물《사회》보다 더 발전된것이기기는 하지만 《협조적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기때문에 그 생물학적기전을 통일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사회생물학은 《사회》라는 말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물질에도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회성곤충》, 《사회성생물》, 《사회생물학》이라는 표현을 마구 조작해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집단인 사회와 동물의 무리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히 구별해보아야 한다.

사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어 생활하는 집단이 바로 사회이다.

인간사회와 동물무리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 차이는 사람은 사회적존재라는것이다. 세계에서 사회적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뜻으로서 자연적존재와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말이다. 즉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존재라는것이다.

그러나 월슨은 인간사회와 동물무리를 동일시한데로부터 《사회성생물》이라는것을 조작하고 그속에 인간과 함께 동물들을 포함시켰으며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을 《사회성생물》이라는 말로 바꾸어놓고 사람만이 유일한 사회적존재라는 주장을 부인하고있다.

월슨의 주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의 주장은 동물무리가 인간의 사회와 비슷하다는데로부터 동물무리의 연구에 사용한 형상적비유가 아니라 맹아적으로라도 동일성을 가지고있으며 호상 련관성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사회와 동물무리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한데 기초한것이다.

동물무리를 인간사회와 동일시하는 사회생물학의 주장은 사람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을 모호하게 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이다.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면 사람의 본성을 자연적, 생물학적속성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다른 생물학적존재와 근본적으

로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찾을수 없다. 맑스주의철학이전의 유물론철학들에서 사람의 본성을 자연적, 생물학적속성에서 찾은것은 바로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았기때문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옳게 해명하려면 사람만이 가지고있는 특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 특성은 바로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이다. 사람을 자연적,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존재로 보는 견지에서만 사람의 본성을 사회적속성에서 찾게 된다. 사람의 사회적속성은 사람이 자연적,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가지게 되는 고유한 특성이다.

동물무리를 인간사회와 동일한것으로 보게 되면 결국 사람만이 유일한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부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진화의 산물로 보게 될뿐아니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밝힐수 없게 된다.

결국 진화론을 악용하여 인간사회와 동물무리의 공통적인 생물학적기초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사회생물학은 사회적존재와 자연적존재, 사회적속성과 생물학적속성의 근본차이를 모호하게 하는 반동적인 견해이다.

진화론의 성과를 악용하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을 생물학적인 유전자에 귀착시켜 설명함으로써 숙명론을 류포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할수 없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생물학은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분류되는 하나의 동물종이라고 하면서 동물의 행동을 규정하는 본능적성질이 이미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있는것처럼 보며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속성도 유전자에 의하여 규정되어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다만 인간의 유전자는 진화과정에서 자연도태에 의하여 적응적변이가 누적되어 이루어진 보다 발전된것이라는 점에서 동물의 유전자와 차이날뿐이라고 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은 《생물체의 하나이며 결코 특수하지 않은 존재》이며 인간의 도덕과 문화도 《인간이라는 생물의 한 종이 보여주는 행동양식》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지어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만연되고있는 동성연애와 같은 《성행위의 개체적특성》에도 그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였으며 자살자에게는 《자살유전자》가, 동정, 희생과 같은 리타현상에는 《리타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을 한갓 유전물질에 기초한 생물학적현상에 불과한것으로 설명하는 사회생물학의 주장은 인간의 본질적속성을 동물의 본능과 같이 타고난것으로, 생물학적인 진화과정의 산물로 외곡함으로써 사람의 본질적특성의 사회적성격을 부인하는 반동적궤변이다.

생물학적존재인 동물의 본능적활동은 타고나는 유전자에 의하여 규정되며 유전자의 진화정도에 의하여 동물의 발전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적존재이기때문에 생물학적존재와 같이 유전자에 의하여 분석될수 없다.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생명물질도 가지고있지 못하는 사회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의 활동과정은 그 어떤 유전물질의 발현과정인것이 아니라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유전에 의하여 타고나는 생물학적속성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력사적과정에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속성이다.

물론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람이 발전된 유기체를 가지고있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진화의 최고산물이며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유기체가 아무리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 발전할수 없었을것이다. 사람의 유기체는 진화의 산물이지만 사람의 사회적속성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속성이며 자연계로부터 물려받은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속성이다. 사람의 사회적속성은 생물학적속성처럼 타고나지도 않으며 유전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활동을 생물학적인 유전자에 귀착시키는 사회생물학의 주장은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속성을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속성으로부터 설명하는 반동적견해이다.

인간활동을 유전자에 귀착시키는 사회생물학의 주장은 결국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생명물질일반의 수준으로 낮추는것으로 되며 추구하고있는 반동적목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수 없게 하려는데 있는것이다.

우리는 진화론을 비롯한 현대생물학의 성과를 악용하고있는 사회생물학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주체철학과 배치되는 사소한 이색적인 요소라도 단호히 반대배격함으로써 주체철학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할것이다.